



백영주



박영일



노스텔지어



백미현



임창제

# 가을밤, 추억과 낭만 속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백영주 · 박영일 · 백미현 · 노스텔지어  
임창제 등 무대 위에 올라 감동 선사

한국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풍미했던 포크송을 연주했던 통기타 명인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한옥마을을 찾았다.

지난 11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9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전북문화진흥원과 전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후원한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는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들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9돌을 맞이하게 됐다.

정지원씨의 사회로, 백영주씨, 박영일씨, 백미현씨, 노스텔지어, 임창제씨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통기타 명인들이 무대 위에 올라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에 추억과 낭만 속으로 빠지게 했다.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매년 열리고 있는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에 많이 외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오늘 이자리에서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사진=양은경 기자 · 김재훈 기자



사회를 맡은 정지원씨.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 오른 임창제씨가 '빛속의 여인'을 열창하고 있다.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의 무대.



가장 먼저 무대 위에 오른 백영주씨.



시낭송 따라 하모니카와 통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박영일씨.



자신의 대표곡 '난 바람 난 눈물'을 부르고 있는 백미현씨.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공연을 즐기고 있는 관객들.



노스텔지어의 멋진 퍼포먼스.



시낭송을 하고 있는 정지원 사회자.